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4호 [루게 제24942호] 주제 104 (2015)년 6월 13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고사포병군관학교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사포병군관학교를 시찰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박정천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고사포병군관학교의 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군관학교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적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0년 12월에 창립해주신 고사포병군관학교는 지난 기간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유능한 고사포병지휘관들을 수많이 양성함으로써 주체적인 반항공무력의 강화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고사포병군관학교가 주체적인 포병무력의 골간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으로서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걸어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력대 지휘성원들의 사진을 보시며 이들

속에 항일혁명투사들이 있는것만 보아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사포병군관학교를 얼마나 중시하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2002년 7월 고사포병군관학교를 돌아보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에 혁명적근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교육환경, 물질생활토대, 문화후생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그존하게 꾸려놓았다고 높이 평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들리는것만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고사포병군관학교에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군사교육사업강화를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군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되는 강력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사포병군관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부대지휘관리정형을 료해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준사격방법연구실에서 진행되는 학생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교직원들이 군사교육의 질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학생들을 당이 바라는 실력있는 지휘관들로 키우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사교육사업은 선군혁명위업의 전도와 군건설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만년대계의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군사교육사업의 과학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일신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사포병군관학교의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와 현대전의 양상에 맞게 더욱 개선하는데서 지침으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고사포병군관학교를 시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강종양위원회를 무숨으로 사수하자!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나지막한 산발을 배경으로 활동마냥 휘우들이 뻗어오른 넓고 시원한 구내길을 걸으며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가 완벽하게 실현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학교에서 이제 나무를 베지 않고서는 식수할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애국가들만이 할수 있는 당당하고 멋있는 말이라고, 수림화, 원림화를 하자면 이틀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식당을 돌아보시면서 대중식당인데 깨끗하고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되었고 음식물가공의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으며 풍나물배장도 잘 꾸려놓았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금잔디가 푸르싱싱 덮인 반듯한 운동장을 보시면서 국제경기장 못지 않다고 하시였고 담배들이 덮인 건물들을 보시고서는 하나같이 마음에 속속

든다고, 이런 훌륭한 교육환경이 보장되어야 부대지휘관리를 잘하는 지휘관들을 키워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회관 복도의 벽면을 짙게 채운 직관물들을 보시며 학생들속에서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고, 특히 위대성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회관안에 들어서시어서는 지방의 혼한 자재를 가지고 회관을 잘 꾸렸다고, 방음상태도 좋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사포병군관학교의 무난방음실, 버섯재배장, 증어장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사포병군관학교에서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작지를 침해하지 않고 구릉지대를 절토하여 온실들을 건설하였다고, 특히 남새재배와 닭기르기를 동시에 할수 있도록 온실을 다기능적으로 꾸린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담배설물로 온실의 지력을 높이고 온도를 보장하여 오이, 도마도,

수박, 유채떡, 배추 등 여러가지 남새생산량을 늘일수 있을뿐아니라 닭알도 정상적으로 생산할수 있어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당의 방침대로 풍동사와 버섯재배, 양어도 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품질으로 버섯재배용기질문제를 해결하여 온실에서 느라리버섯을 많이 수확하고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증어장과 먹이생산기까지 꾸려놓고 초어, 통정어, 메기 등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길러내고있다고, 비경지에 줄당콩까지 심고있는데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해 얼마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사포병군관학교의 후방기지는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가 어디에 있으며 당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여 그 덕을 보게 하자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속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사포병군관학교의 교직원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해놓았다고, 당에서 하라고

한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고있다고, 당의 사상과 로선을 사업의 기준, 자막대기로 삼고 투쟁하고있기에 놀라운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곳 학교는 당의 명령지시가 쪽쪽 내려가는 청춘세포와 같은 활력을 지닌 단위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사포병군관학교를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이 학교는 전군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랑할만 한 본보기단위, 전형단위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사포병군관학교의 가는 곳마다에 펼쳐진 희한하고 류다른 풍경속에는 지난 수십년동안 이곳 학교의 정치부 책임일군으로 사업한 박성원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이 크게 깃들여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는 뚜렷한 생의 흔적을 남긴 애국자라고, 모든 일군들이 그의 투쟁기풍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사포병군관학교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전군, 전사회적으로 널리 소개

선전하고 일반화하며 적극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벌릴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사포병군관학교의 교직원, 군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기념사진을 찍은 교직원들과 군인들은 격정에 겨워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걸사옹위!》의 구호를 목에여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고사포병군관학교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몸소 학교에 찾아오시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충정의 결에 찬탄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캄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에 조전을 보내였다

프놈 펜

### 캄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캄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체아 심 친왕각하가 병환으로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이 접하여 귀국중앙위원회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체아 심 친왕각하는 캄보자의 번영과 민족적단합, 캄보자와 조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체아 심 친왕각하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그의 업적은 캄보자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입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4(2015)년 6월 11일

평양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런던

대브리튼 및 북아일랜드련합왕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폐하

나는 귀국의 국경절인 폐하의 생일 공식기념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폐하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4(2015)년 6월 1일 평양

마닐라 필리핀공화국 대통령 베니그노 씨메온 쿼주양코 아키노각하

나는 필리핀독립 117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4(2015)년 6월 12일 평양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덕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덕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가 12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소수용동지와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성, 관계부문 일군들, 문덕수산사업소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문덕수산사업소 어로공들과 기술자,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44(1955)년 6월 13일 전후복구건설을 이끄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문덕수산사업

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사업소를 잘 꾸리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음에 대한 문제로부터 후방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소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문덕수산사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진어로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물고기가공기지를 잘 꾸리며 사업소가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고있는 당중앙이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본받아 어로전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문덕수산사업소 어로공들과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고 더욱 분발하여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응정을 베풀어준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자체의 힘으로 만능선과 안강망선, 운반선들을 새로 건조하고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여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버거가스를 리용하는 발전기와 혼합유가공설비를 창안제작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배우이와 배수리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이토 어로공들과 기술자,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열렬한 애국심을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문덕수산사업소 지체인 립명회의 보고에 이어 기상장 최일규, 신장 김평현, 직장장 리성철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수산사

업소가 지난 6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믿음직한 수산기지로 강화발전되었다고 하면서 당중앙위원회 감사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어선들을 만능어선으로 개조하고 배수리기일을 줄여 당에서 정해진 출어일수를 무조건 보장하면서 어선마다 만능의 배고동소리를 더 높이 울릴것이라고 말했다.

수산물가공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며 어로공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업소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삼천리에 굶이친 위인 칭송의 열풍

#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중앙 지구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의 채택과 더불어 세차게 휘몰아친 위인칭송의 열풍으로 겨레의 심장이 쇠철처럼 단고 세계가 융암처럼 굳은 때로부터 15년이 되어갔다.

지금 우리 겨레는 그 가슴직한 나날을 돌이켜보며 온 삼천리강토를 휩쓴 위인칭송의 열풍속에 다시금 자신들을 세우고있다. 그 열렬한 매혹과 흥분의 폭풍은 우리 민족사에 감동일여로 아로새겨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밀천을 마련하시었으며 재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횡도 밟아놓으셨고 OASIA와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시었습니다.》

올이 큰 결단, 바다처럼 넓고 대륙처럼 확 트인 호방한 성격, 유쾌한 유모아, 해박한 지식은 좌중의 심금을 울려잡으며 환희의 파도를 또다시 몰아왔다.

그에 대해 남조선 언론들은 《두 수뇌분들의 력사적인 상봉은 수십년을 기다려왔던 감각의 최절정이었다.》, 《7천만겨레에게 상상성을 뛰어넘어 모두의 가슴깊이 울려오던 분별의 한을 풀어내는 감동적인 사면이었다.》라고 대서특필하였다. 막혔던 물결이 터져듯 북남관계개선의 사면적성파들이 연이어 펼쳐졌다. 우리 민족끼리 시대를 도드라진 속에 북남과 대결로 얼어붙은 장벽을 뚫으며 철도와 도로가 다시 뻗어나가 민족의 피가 통하고 있었던 겨레의 정과 열이 흐르기 시작했다. 남조선의 언론사태도 달라졌는데 백두산과 주체사상탑을 둘러싼 환성을 터치고 남조선전당, 단계, 개별인사들이 조선로동당 창건 55돌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열광의 환호를 울리며 력사의 한 페이지를 번지였다.

이제 거는 달랐다. 력사는 이렇게 바로섰다. 그러나 자주통일의 밝은 서광을 안아온 절제위인을 끝없이 칭송하는 감각의 열풍이 어찌 세차게 휘몰아치지 않을수 있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에 하신 말씀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단합된 힘과 슬기를 합쳐 우리 민족끼리 통일 장성대국을 만들자고 한다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세계를 쳐다보게 하라 하신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다.

물어보자 겨레여, 반만년민족사에 조선민족의 자존심이 이렇듯 강하게 솟아나 있었는가.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이 세겨진 절제위인의 친필에 조중의 산, 백두산의 빛과 기상을 보았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통이 크고 호랑하고 자상하면서도 정치적으로 힘이 뛰어남분》, 《인간적으로는 평정하 평범하면서도 정치가로서는 평정하 능력이었고 비범한 지도자》... 남조선언론들이 실었던 이 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품도에 매혹된 남조선민을 그대로 담고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함께 남녘겨레의 뇌리에 새겨진것은 잠바를 입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이었다.

한방울의 물이 우주가 비낀다던 남조선에서 류형의 흐름을 바꾸어놓는 《잠바열풍》은 그 어떤 명구로도 설명할수 없는 민족의 어머니의 위인적덕망에 매혹된 남조선민들의 찬탄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정치가의 옷이 인민위에 군림하는 권세의 날개로 되고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입으신 잠바는 인민에게 봉사하는 잠바는 소박함과 함께 인민에 대한 헌신이 비껴있어 더욱 거룩해보인다. 위인의 평민복이었다. 그것은 그대로 6.15를 안아온 선군정치, 기록, 백승의 야전복이기도 했다.

하기에 남조선의류학회 리사는 《위인과 잠바》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명수의 잠바는 비할수 없는 위대함이 빛나고 숨고함이었다. 거기에는 위대한 인간의 미덕이 향기롭고 탁월한 정치가의 리더십이 엮여져있다.》

위인칭송의 열풍이 불어치는 속에 남조선에서는 장군님의 대외관과 장군님식 수교가 류형되었다. 학생들 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필체를 따라배우는것이 하나의 풍으로 되었다.

2012년의 봄에 판문점총곡으로 세계를 진감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첫 연설로 겨레의 심장속에 격동의 파도를 일으키시었다.

정중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은 남녘겨레의 가슴을 융암처럼 뚫어내지게 하였다.

그이의 위대한 평도말에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제국주의강국도 귀머거리처럼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은 우여에 닿고있다. 우리의 전략적수단 란도란수중시험발사의 완전 성공을 미혹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기겁을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인담대한 기상, 조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로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시려는 백두의 신악같이 굳건한 그이의 철석의 의지는 부강변영하는 통일강국을 넘나드는 온 겨레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 온 겨레가 경탄하고 세계가 놀라하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기 김정일영웅은 영원하며 이 땅우에는 시대와 력사를 잇는 위인칭송의 새로운 폭풍이 휘몰아치게 된다.

2012년의 봄에 판문점총곡으로 세계를 진감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첫 연설로 겨레의 심장속에 격동의 파도를 일으키시었다.

정중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은 남녘겨레의 가슴을 융암처럼 뚫어내지게 하였다.

그이의 위대한 평도말에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제국주의강국도 귀머거리처럼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은 우여에 닿고있다. 우리의 전략적수단 란도란수중시험발사의 완전 성공을 미혹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기겁을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인담대한 기상, 조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로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시려는 백두의 신악같이 굳건한 그이의 철석의 의지는 부강변영하는 통일강국을 넘나드는 온 겨레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 온 겨레가 경탄하고 세계가 놀라하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기 김정일영웅은 영원하며 이 땅우에는 시대와 력사를 잇는 위인칭송의 새로운 폭풍이 휘몰아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인담대한 기상, 조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로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시려는 백두의 신악같이 굳건한 그이의 철석의 의지는 부강변영하는 통일강국을 넘나드는 온 겨레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 온 겨레가 경탄하고 세계가 놀라하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기 김정일영웅은 영원하며 이 땅우에는 시대와 력사를 잇는 위인칭송의 새로운 폭풍이 휘몰아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인담대한 기상, 조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로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시려는 백두의 신악같이 굳건한 그이의 철석의 의지는 부강변영하는 통일강국을 넘나드는 온 겨레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 온 겨레가 경탄하고 세계가 놀라하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기 김정일영웅은 영원하며 이 땅우에는 시대와 력사를 잇는 위인칭송의 새로운 폭풍이 휘몰아치게 된다.

회사의 위인을 모시며 6.15 통일시대는 사변으로 충만되었고 온 겨레는 일제치 없었던 격동과 흥분속에 세계를 놀래운 민족사적사변의 제창자, 증언자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은 남측당국자를 맞이주시며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 순간 세계사변의 격과 열이 일어났다. 그것은 정경 분열의 아픔을 가시는 6.15 통일시대의 해돋이였고 북남과 대결의 아픔을 밀어내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온 남녘땅이 폭풍같은 환성을 터쳐올렸고 온 겨레가 감동, 기쁨, 격정의 바다에 빠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전하는 전과가 우주공간을 누비었다.

절제위인의 예지로 빛나는 안방, 볼날처럼 따스한 미소, 만민을 끌어당기는 포용력과 다정한 인성미에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어찌 그뿐이라. 회담장에서, 연회장에서 절제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회사의 위인을 모시며 6.15 통일시대는 사변으로 충만되었고 온 겨레는 일제치 없었던 격동과 흥분속에 세계를 놀래운 민족사적사변의 제창자, 증언자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은 남측당국자를 맞이주시며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 순간 세계사변의 격과 열이 일어났다. 그것은 정경 분열의 아픔을 가시는 6.15 통일시대의 해돋이였고 북남과 대결의 아픔을 밀어내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온 남녘땅이 폭풍같은 환성을 터쳐올렸고 온 겨레가 감동, 기쁨, 격정의 바다에 빠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전하는 전과가 우주공간을 누비었다.

절제위인의 예지로 빛나는 안방, 볼날처럼 따스한 미소, 만민을 끌어당기는 포용력과 다정한 인성미에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어찌 그뿐이라. 회담장에서, 연회장에서 절제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회사의 위인을 모시며 6.15 통일시대는 사변으로 충만되었고 온 겨레는 일제치 없었던 격동과 흥분속에 세계를 놀래운 민족사적사변의 제창자, 증언자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은 남측당국자를 맞이주시며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 순간 세계사변의 격과 열이 일어났다. 그것은 정경 분열의 아픔을 가시는 6.15 통일시대의 해돋이였고 북남과 대결의 아픔을 밀어내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온 남녘땅이 폭풍같은 환성을 터쳐올렸고 온 겨레가 감동, 기쁨, 격정의 바다에 빠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전하는 전과가 우주공간을 누비었다.

절제위인의 예지로 빛나는 안방, 볼날처럼 따스한 미소, 만민을 끌어당기는 포용력과 다정한 인성미에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어찌 그뿐이라. 회담장에서, 연회장에서 절제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회사의 위인을 모시며 6.15 통일시대는 사변으로 충만되었고 온 겨레는 일제치 없었던 격동과 흥분속에 세계를 놀래운 민족사적사변의 제창자, 증언자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은 남측당국자를 맞이주시며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 순간 세계사변의 격과 열이 일어났다. 그것은 정경 분열의 아픔을 가시는 6.15 통일시대의 해돋이였고 북남과 대결의 아픔을 밀어내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온 남녘땅이 폭풍같은 환성을 터쳐올렸고 온 겨레가 감동, 기쁨, 격정의 바다에 빠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전하는 전과가 우주공간을 누비었다.

절제위인의 예지로 빛나는 안방, 볼날처럼 따스한 미소, 만민을 끌어당기는 포용력과 다정한 인성미에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어찌 그뿐이라. 회담장에서, 연회장에서 절제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회사의 위인을 모시며 6.15 통일시대는 사변으로 충만되었고 온 겨레는 일제치 없었던 격동과 흥분속에 세계를 놀래운 민족사적사변의 제창자, 증언자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은 남측당국자를 맞이주시며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 순간 세계사변의 격과 열이 일어났다. 그것은 정경 분열의 아픔을 가시는 6.15 통일시대의 해돋이였고 북남과 대결의 아픔을 밀어내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온 남녘땅이 폭풍같은 환성을 터쳐올렸고 온 겨레가 감동, 기쁨, 격정의 바다에 빠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전하는 전과가 우주공간을 누비었다.

절제위인의 예지로 빛나는 안방, 볼날처럼 따스한 미소, 만민을 끌어당기는 포용력과 다정한 인성미에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어찌 그뿐이라. 회담장에서, 연회장에서 절제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회사의 위인을 모시며 6.15 통일시대는 사변으로 충만되었고 온 겨레는 일제치 없었던 격동과 흥분속에 세계를 놀래운 민족사적사변의 제창자, 증언자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은 남측당국자를 맞이주시며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 순간 세계사변의 격과 열이 일어났다. 그것은 정경 분열의 아픔을 가시는 6.15 통일시대의 해돋이였고 북남과 대결의 아픔을 밀어내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온 남녘땅이 폭풍같은 환성을 터쳐올렸고 온 겨레가 감동, 기쁨, 격정의 바다에 빠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전하는 전과가 우주공간을 누비었다.

절제위인의 예지로 빛나는 안방, 볼날처럼 따스한 미소, 만민을 끌어당기는 포용력과 다정한 인성미에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어찌 그뿐이라. 회담장에서, 연회장에서 절제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회사의 위인을 모시며 6.15 통일시대는 사변으로 충만되었고 온 겨레는 일제치 없었던 격동과 흥분속에 세계를 놀래운 민족사적사변의 제창자, 증언자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은 남측당국자를 맞이주시며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 순간 세계사변의 격과 열이 일어났다. 그것은 정경 분열의 아픔을 가시는 6.15 통일시대의 해돋이였고 북남과 대결의 아픔을 밀어내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온 남녘땅이 폭풍같은 환성을 터쳐올렸고 온 겨레가 감동, 기쁨, 격정의 바다에 빠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전하는 전과가 우주공간을 누비었다.

절제위인의 예지로 빛나는 안방, 볼날처럼 따스한 미소, 만민을 끌어당기는 포용력과 다정한 인성미에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어찌 그뿐이라. 회담장에서, 연회장에서 절제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회사의 위인을 모시며 6.15 통일시대는 사변으로 충만되었고 온 겨레는 일제치 없었던 격동과 흥분속에 세계를 놀래운 민족사적사변의 제창자, 증언자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은 남측당국자를 맞이주시며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 순간 세계사변의 격과 열이 일어났다. 그것은 정경 분열의 아픔을 가시는 6.15 통일시대의 해돋이였고 북남과 대결의 아픔을 밀어내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온 남녘땅이 폭풍같은 환성을 터쳐올렸고 온 겨레가 감동, 기쁨, 격정의 바다에 빠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전하는 전과가 우주공간을 누비었다.

절제위인의 예지로 빛나는 안방, 볼날처럼 따스한 미소, 만민을 끌어당기는 포용력과 다정한 인성미에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어찌 그뿐이라. 회담장에서, 연회장에서 절제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회사의 위인을 모시며 6.15 통일시대는 사변으로 충만되었고 온 겨레는 일제치 없었던 격동과 흥분속에 세계를 놀래운 민족사적사변의 제창자, 증언자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은 남측당국자를 맞이주시며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 순간 세계사변의 격과 열이 일어났다. 그것은 정경 분열의 아픔을 가시는 6.15 통일시대의 해돋이였고 북남과 대결의 아픔을 밀어내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온 남녘땅이 폭풍같은 환성을 터쳐올렸고 온 겨레가 감동, 기쁨, 격정의 바다에 빠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전하는 전과가 우주공간을 누비었다.

절제위인의 예지로 빛나는 안방, 볼날처럼 따스한 미소, 만민을 끌어당기는 포용력과 다정한 인성미에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어찌 그뿐이라. 회담장에서, 연회장에서 절제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략소동

피괴패당이 반공화국 《인권》모략에 눈이 뒤집혔다. 말할바다 《인권》을 떠들며 생드립을 걸었던 피괴패들이 최근에는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거들며 대결소동에 미칠날뛰고있다. 피괴패들은 어용연구기관들과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가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해외경제적조달을 진행하는데 대해 그 무슨 《노예노동》이니, 《착취》니 하고 갖은 협담을 늘어놓고있다. 지난 5월말에는 서울에서 이미 6차회담대표들과 반공화국대표들을 불러놓고 해외파견근로자 《인권》문제를 새로운 《대북양학소》로 써먹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유치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다. 피괴패들이 얼마나 궁해졌으면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고안해내겠는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에 대한 착취가 근원적으로 청산되어 오매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피괴패당이 감히 헐뜯는다. 《인권》모략에 열을 올리는것은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개나발이다.

피괴패들은 누구를 총알까지 전에 근로인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그들을 착취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해온 저들의 죄악의 력사부터 돌이켜 보아야 할것이다. 문명을 지칭하는 21세기에도 노예노동과 자본의 착취가 진행되고있는 전형적인 반인륜적사회의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남조선이야말로 현대판노예사회이며 피괴패당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악착하게 빼아 외세의 배를 불려주고 부귀부락을 누리는 극악무도한 착취자이다.

특히 현 피괴패정권의 예비는 《인력수출》로 악명높은 특등인건법피괴자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광부, 간호원의 명목으로 해외의 구역장들에 내민지고 어린이들까지 《해외입양》의 명목으로 팔아넘기다 못해 《골목없는 산업》이니, 소득높은 《외화원천》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수많은 남조선인성들을 미제침략군의 성노리개로 섬겨버린 것이 바로 《유신》독재판이다.

《유신》독재부활을 꿈꾸고있는 현 피

피괴패당은 최근에는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거들며 대결소동에 미칠날뛰고있다. 피괴패들은 어용연구기관들과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가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해외경제적조달을 진행하는데 대해 그 무슨 《노예노동》이니, 《착취》니 하고 갖은 협담을 늘어놓고있다. 지난 5월말에는 서울에서 이미 6차회담대표들과 반공화국대표들을 불러놓고 해외파견근로자 《인권》문제를 새로운 《대북양학소》로 써먹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유치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다. 피괴패들이 얼마나 궁해졌으면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고안해내겠는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에 대한 착취가 근원적으로 청산되어 오매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피괴패당이 감히 헐뜯는다. 《인권》모략에 열을 올리는것은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개나발이다.

피괴패들은 누구를 총알까지 전에 근로인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그들을 착취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해온 저들의 죄악의 력사부터 돌이켜 보아야 할것이다. 문명을 지칭하는 21세기에도 노예노동과 자본의 착취가 진행되고있는 전형적인 반인륜적사회의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남조선이야말로 현대판노예사회이며 피괴패당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악착하게 빼아 외세의 배를 불려주고 부귀부락을 누리는 극악무도한 착취자이다.

특히 현 피괴패정권의 예비는 《인력수출》로 악명높은 특등인건법피괴자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광부, 간호원의 명목으로 해외의 구역장들에 내민지고 어린이들까지 《해외입양》의 명목으로 팔아넘기다 못해 《골목없는 산업》이니, 소득높은 《외화원천》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수많은 남조선인성들을 미제침략군의 성노리개로 섬겨버린 것이 바로 《유신》독재판이다.

《유신》독재부활을 꿈꾸고있는 현 피

피괴패당은 최근에는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거들며 대결소동에 미칠날뛰고있다. 피괴패들은 어용연구기관들과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가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해외경제적조달을 진행하는데 대해 그 무슨 《노예노동》이니, 《착취》니 하고 갖은 협담을 늘어놓고있다. 지난 5월말에는 서울에서 이미 6차회담대표들과 반공화국대표들을 불러놓고 해외파견근로자 《인권》문제를 새로운 《대북양학소》로 써먹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유치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다. 피괴패들이 얼마나 궁해졌으면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고안해내겠는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에 대한 착취가 근원적으로 청산되어 오매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피괴패당이 감히 헐뜯는다. 《인권》모략에 열을 올리는것은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개나발이다.

피괴패들은 누구를 총알까지 전에 근로인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그들을 착취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해온 저들의 죄악의 력사부터 돌이켜 보아야 할것이다. 문명을 지칭하는 21세기에도 노예노동과 자본의 착취가 진행되고있는 전형적인 반인륜적사회의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남조선이야말로 현대판노예사회이며 피괴패당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악착하게 빼아 외세의 배를 불려주고 부귀부락을 누리는 극악무도한 착취자이다.

특히 현 피괴패정권의 예비는 《인력수출》로 악명높은 특등인건법피괴자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광부, 간호원의 명목으로 해외의 구역장들에 내민지고 어린이들까지 《해외입양》의 명목으로 팔아넘기다 못해 《골목없는 산업》이니, 소득높은 《외화원천》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수많은 남조선인성들을 미제침략군의 성노리개로 섬겨버린 것이 바로 《유신》독재판이다.

《유신》독재부활을 꿈꾸고있는 현 피

피괴패당은 최근에는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거들며 대결소동에 미칠날뛰고있다. 피괴패들은 어용연구기관들과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가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해외경제적조달을 진행하는데 대해 그 무슨 《노예노동》이니, 《착취》니 하고 갖은 협담을 늘어놓고있다. 지난 5월말에는 서울에서 이미 6차회담대표들과 반공화국대표들을 불러놓고 해외파견근로자 《인권》문제를 새로운 《대북양학소》로 써먹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유치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다. 피괴패들이 얼마나 궁해졌으면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고안해내겠는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에 대한 착취가 근원적으로 청산되어 오매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피괴패당이 감히 헐뜯는다. 《인권》모략에 열을 올리는것은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개나발이다.

피괴패들은 누구를 총알까지 전에 근로인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그들을 착취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해온 저들의 죄악의 력사부터 돌이켜 보아야 할것이다. 문명을 지칭하는 21세기에도 노예노동과 자본의 착취가 진행되고있는 전형적인 반인륜적사회의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남조선이야말로 현대판노예사회이며 피괴패당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악착하게 빼아 외세의 배를 불려주고 부귀부락을 누리는 극악무도한 착취자이다.

특히 현 피괴패정권의 예비는 《인력수출》로 악명높은 특등인건법피괴자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광부, 간호원의 명목으로 해외의 구역장들에 내민지고 어린이들까지 《해외입양》의 명목으로 팔아넘기다 못해 《골목없는 산업》이니, 소득높은 《외화원천》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수많은 남조선인성들을 미제침략군의 성노리개로 섬겨버린 것이 바로 《유신》독재판이다.

《유신》독재부활을 꿈꾸고있는 현 피

피괴패당은 최근에는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거들며 대결소동에 미칠날뛰고있다. 피괴패들은 어용연구기관들과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가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해외경제적조달을 진행하는데 대해 그 무슨 《노예노동》이니, 《착취》니 하고 갖은 협담을 늘어놓고있다. 지난 5월말에는 서울에서 이미 6차회담대표들과 반공화국대표들을 불러놓고 해외파견근로자 《인권》문제를 새로운 《대북양학소》로 써먹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유치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다. 피괴패들이 얼마나 궁해졌으면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고안해내겠는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에 대한 착취가 근원적으로 청산되어 오매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피괴패당이 감히 헐뜯는다. 《인권》모략에 열을 올리는것은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개나발이다.

피괴패들은 누구를 총알까지 전에 근로인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그들을 착취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해온 저들의 죄악의 력사부터 돌이켜 보아야 할것이다. 문명을 지칭하는 21세기에도 노예노동과 자본의 착취가 진행되고있는 전형적인 반인륜적사회의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남조선이야말로 현대판노예사회이며 피괴패당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악착하게 빼아 외세의 배를 불려주고 부귀부락을 누리는 극악무도한 착취자이다.

특히 현 피괴패정권의 예비는 《인력수출》로 악명높은 특등인건법피괴자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광부, 간호원의 명목으로 해외의 구역장들에 내민지고 어린이들까지 《해외입양》의 명목으로 팔아넘기다 못해 《골목없는 산업》이니, 소득높은 《외화원천》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수많은 남조선인성들을 미제침략군의 성노리개로 섬겨버린 것이 바로 《유신》독재판이다.

《유신》독재부활을 꿈꾸고있는 현 피

피괴패당은 최근에는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거들며 대결소동에 미칠날뛰고있다. 피괴패들은 어용연구기관들과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가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해외경제적조달을 진행하는데 대해 그 무슨 《노예노동》이니, 《착취》니 하고 갖은 협담을 늘어놓고있다. 지난 5월말에는 서울에서 이미 6차회담대표들과 반공화국대표들을 불러놓고 해외파견근로자 《인권》문제를 새로운 《대북양학소》로 써먹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유치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다. 피괴패들이 얼마나 궁해졌으면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고안해내겠는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에 대한 착취가 근원적으로 청산되어 오매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피괴패당이 감히 헐뜯는다. 《인권》모략에 열을 올리는것은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개나발이다.

피괴패들은 누구를 총알까지 전에 근로인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그들을 착취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해온 저들의 죄악의 력사부터 돌이켜 보아야 할것이다. 문명을 지칭하는 21세기에도 노예노동과 자본의 착취가 진행되고있는 전형적인 반인륜적사회의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남조선이야말로 현대판노예사회이며 피괴패당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악착하게 빼아 외세의 배를 불려주고 부귀부락을 누리는 극악무도한 착취자이다.

특히 현 피괴패정권의 예비는 《인력수출》로 악명높은 특등인건법피괴자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광부, 간호원의 명목으로 해외의 구역장들에 내민지고 어린이들까지 《해외입양》의 명목으로 팔아넘기다 못해 《골목없는 산업》이니, 소득높은 《외화원천》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수많은 남조선인성들을 미제침략군의 성노리개로 섬겨버린 것이 바로 《유신》독재판이다.

《유신》독재부활을 꿈꾸고있는 현 피

피괴패당은 최근에는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거들며 대결소동에 미칠날뛰고있다. 피괴패들은 어용연구기관들과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가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해외경제적조달을 진행하는데 대해 그 무슨 《노예노동》이니, 《착취》니 하고 갖은 협담을 늘어놓고있다. 지난 5월말에는 서울에서 이미 6차회담대표들과 반공화국대표들을 불러놓고 해외파견근로자 《인권》문제를 새로운 《대북양학소》로 써먹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유치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다. 피괴패들이 얼마나 궁해졌으면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고안해내겠는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에 대한 착취가 근원적으로 청산되어 오매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피괴패당이 감히 헐뜯는다. 《인권》모략에 열을 올리는것은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개나발이다.

피괴패들은 누구를 총알까지 전에 근로인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그들을 착취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해온 저들의 죄악의 력사부터 돌이켜 보아야 할것이다. 문명을 지칭하는 21세기에도 노예노동과 자본의 착취가 진행되고있는 전형적인 반인륜적사회의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남조선이야말로 현대판노예사회이며 피괴패당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악착하게 빼아 외세의 배를 불려주고 부귀부락을 누리는 극악무도한 착취자이다.

특히 현 피괴패정권의 예비는 《인력수출》로 악명높은 특등인건법피괴자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광부, 간호원의 명목으로 해외의 구역장들에 내민지고 어린이들까지 《해외입양》의 명목으로 팔아넘기다 못해 《골목없는 산업》이니, 소득높은 《외화원천》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수많은 남조선인성들을 미제침략군의 성노리개로 섬겨버린 것이 바로 《유신》독재판이다.

《유신》독재부활을 꿈꾸고있는 현 피

피괴패당은 최근에는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거들며 대결소동에 미칠날뛰고있다. 피괴패들은 어용연구기관들과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가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해외경제적조달을 진행하는데 대해 그 무슨 《노예노동》이니, 《착취》니 하고 갖은 협담을 늘어놓고있다. 지난 5월말에는 서울에서 이미 6차회담대표들과 반공화국대표들을 불러놓고 해외파견근로자 《인권》문제를 새로운 《대북양학소》로 써먹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유치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다. 피괴패들이 얼마나 궁해졌으면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고안해내겠는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에 대한 착취가 근원적으로 청산되어 오매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피괴패당이 감히 헐뜯는다. 《인권》모략에 열을 올리는것은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개나발이다.

피괴패들은 누구를 총알까지 전에 근로인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그들을 착취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해온 저들의 죄악의 력사부터 돌이켜 보아야 할것이다. 문명을 지칭하는 21세기에도 노예노동과 자본의 착취가 진행되고있는 전형적인 반인륜적사회의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남조선이야말로 현대판노예사회이며 피괴패당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악착하게 빼아 외세의 배를 불려주고 부귀부락을 누리는 극악무도한 착취자이다.

특히 현 피괴패정권의 예비는 《인력수출》로 악명높은 특등인건법피괴자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광부, 간호원의 명목으로 해외의 구역장들에 내민지고 어린이들까지 《해외입양》의 명목으로 팔아넘기다 못해 《골목없는 산업》이니, 소득높은 《외화원천》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수많은 남조선인성들을 미제침략군의 성노리개로 섬겨버린 것이 바로 《유신》독재판이다.

《유신》독재부활을 꿈꾸고있는 현 피

피괴패당은 최근에는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거들며 대결소동에 미칠날뛰고있다. 피괴패들은 어용연구기관들과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가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해외경제적조달을 진행하는데 대해 그 무슨 《노예노동》이니, 《착취》니 하고 갖은 협담을 늘어놓고있다. 지난 5월말에는 서울에서 이미 6차회담대표들과 반공화국대표들을 불러놓고 해외파견근로자 《인권》문제를 새로운 《대북양학소》로 써먹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유치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다. 피괴패들이 얼마나 궁해졌으면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까지 고안해내겠는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에 대한 착취가 근원적으로 청산되어 오매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피괴패당이 감히 헐뜯는다. 《인권》모략에 열을 올리는것은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개나발이다.

피괴패들은 누구를 총알까지 전에 근로인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그들을 착취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해온 저들의 죄악의 력사부터 돌이켜 보아야 할것이다. 문명을 지칭하는 21세기에도 노예노동과 자본의 착취가 진행되고있는 전형적인 반인륜적사회의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남조선이야말로 현대판노예사회이며 피괴패당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악착하게 빼아 외세의 배를 불려주고 부귀부락을 누리는 극악무도한 착취자이다.

특히 현 피괴패정권의 예비는 《인력수출》로 악명높은 특등인건법피괴자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광부, 간호원의 명목으로 해외의 구역장들에 내민지고 어린이들까지 《해외입양》의 명목으로 팔아넘기다 못해 《골목없는 산업》이니, 소득높은 《외화원천》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수많은 남조선인성들을 미제침략군의 성노리개로 섬겨버린 것이 바로 《유신》독재판이다.

《유신》독재부활을 꿈꾸고있는 현 피

#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

# 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인 차학길동무와 종업원들

말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인 차학길동무와 종업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들은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인민군인들을 적극 원호하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따스히 돌봐주셨을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향선의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 어느날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가 군사부무를 하던 부대를 시찰하시었다는 감각적인 소식에 집한 차학길동무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나 보람찬던 병사생활이었는가.)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며 그는 안해인 조경숙동무에게 절절한 애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가 잘은 일을 잘하는것만은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수 없다고 보오. 총대

말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인 차학길동무와 종업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들은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인민군인들을 적극 원호하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따스히 돌봐주셨을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향선의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 어느날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가 군사부무를 하던 부대를 시찰하시었다는 감각적인 소식에 집한 차학길동무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나 보람찬던 병사생활이었는가.)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며 그는 안해인 조경숙동무에게 절절한 애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가 잘은 일을 잘하는것만은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수 없다고 보오. 총대

말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인 차학길동무와 종업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들은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인민군인들을 적극 원호하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따스히 돌봐주셨을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향선의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 어느날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가 군사



# 핵경쟁을 몰아오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회 상원에서 심의하고있는 국가방위권법안에 조선은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한다. 미국회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존 맥케인이 지난달에 제기한 국가방위권법안 본문에는 미국방성에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조항은 《핵경쟁이 팽창되어있는 다른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지고있다.》, 《국가방위권법안이 발표된 이후 25년간 추가로 핵무기를 획득한 국가들이 있다.》고 설명하고나서 《북조선은 핵무장국이고 이러한 핵무기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은 미국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나타내고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과 피뢰들은 국가방위권법안에서 우리 나라에 대해 《핵무장국》이라고 규정하는 핵무기전과방위 조약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국제법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핵무기능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된다. 미국과 남조선은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조선의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불명명 합의를 가지고있다는 것이 더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누가 인정하는 안하는 우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선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이 지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확고해지고 있다. 미국은 이 사실에 대해 더 이상 눈감고 아옹할 수 없어 우리 나라를 《핵무장국》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미국이

공격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미국내에서는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의 한 전 문가는 지난 2월 25일 미국회 하원의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조선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를 《핵무장국》으로 규정 한 국가방위권법안의 그 조항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남아시아지역에서 핵경쟁이 첨예화되고있는 것,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핵경쟁이 진행되고 그것이 중동지역전체의 연속적 핵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이 언급되어있다고 한다. 이어 핵무장을 한 나라들의 핵무기사용절정과 관련한 문제들이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지적되어있다.

미국이 국가방위권법안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킨 것은 핵무기교를 현대화하고 더욱 늘리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고 항시적으로 감행하고있는 핵전도발행등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세계 핵환경이 매우 복잡해 진데 대해 《우리》를 표시하기 전에 그 형태를 만들어놓는데 대해 심각히 반성해 보아야 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핵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도록 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이 지구상에 핵무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경쟁이라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인류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여야 할 핵기술을 그 무엇보다 먼저 대량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리용하고 인류에게 최초로 핵확산을 들먹인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시험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극비밀리에 원자탄폭발시험이 진행되었다. 원자탄시험책임자는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였다. 당시의 긴장한 상황에 대하여 어느 한 자료에는 이렇게 밝혀져있다. 《초급기가 시작되고 주위는 고요해지고 있었다.》

10, 9, 8, 7, 6, 5, 4, 3, 2, 1 새벽 5시 29분 45초 원자폭탄이 폭발하였다. 태양보다도 강렬한 섬광이 번뜩였다. 오펜하이머에게는 한두초의 시간이 한 구절이 생각났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신이 되어 세계의 파괴자로 될 것이다.》

이 무서운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은 군사적인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다. 《미국은 원자탄폭발시험에서 성공한 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들을 투하하였다. 그해 10월에 오펜하이머는 쫓겨난 원자탄을 개발할 수 있는 날이 절대로 올수가 없다고 어리석게 단언하는 트루먼에게 분노해하면서 《나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다.》고 절규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원자탄보유와 투하는 당시 시편에 대한 위협이었을 뿐 아니라 전세계 인류에 대한 로폭적인 위협이었다.

1949년 9월에 쏘련은 핵시험을 진행하여 성공시켰다.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우리의 핵독점은 이제 햇빛을 받아 점점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자료에도 《원자탄은 미국의 독점물—이것은 트루먼의 엄청난 환상이다. 드디어 수소탄개발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등 핵군비확장경향이 시작되었다.》라고 밝혀져있다. 실지

로 그후 여러 열강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핵무기기술을 획득하고 핵보유국으로 되었다.

미국은 핵무기전과방위 조약의 정신을 위반하고 핵무기기술을 전파시킨 범죄자이다.

핵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의무를 부여한 핵무기전과방위 조약은 1968년 7월 1일에 조인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조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았다.

미국은 바로 1969년에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였다. 지난해에 미국정부가 비밀해한 문건들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 문건들에 의하면 1969년 9월 당시 미국정권자 닉슨과 이스라엘수상 메이르의 밀담을 벌이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확산조약을 계속할 필증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핵무기전과방위 동은 결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의 원자력기술협력의 간담에 1950년대에 벌써 일본의 원자력 핵개발을 완료시키고 일본본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을 작성하였다. 1972년에는 일본당국과 오키나와를 반환하는 대신 《유사시》 일본으로 미국 핵무기반입을 허용할 때 관한 비밀협의를 이룩하였다. 2010년에는 나토성원국들과 핵무장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하였다.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핵무기기술을 전파시키고 세계적인 핵경쟁을 산생시킨 장본인이며 주범이라는 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이 패권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핵국가들을 핵무기로 없애기 위해 위협공갈한 것도 핵전과와 핵경쟁을 조장시킨 원인의 하나이다. 핵무기전과방위 조약에는 핵보유국을 비핵국가들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게 되어있다. 미국은 언제나 그 조약을 준수하는 일은 다른 나라들에만 해당된다고 자기는 조약에서 행동해도 무방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놀아났다. 우리 나라는 조약준수의 의무를 부여한 핵무기전과방위 조약은 1968년 7월 1일에 조인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조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았다. 미국은 바로 1969년에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였다. 지난해에 미국정부가 비밀해한 문건들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 문건들에 의하면 1969년 9월 당시 미국정권자 닉슨과 이스라엘수상 메이르의 밀담을 벌이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확산조약을 계속할 필증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원자탄폭발시험에서 성공한 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들을 투하하였다. 그해 10월에 오펜하이머는 쫓겨난 원자탄을 개발할 수 있는 날이 절대로 올수가 없다고 어리석게 단언하는 트루먼에게 분노해하면서 《나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다.》고 절규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원자탄보유와 투하는 당시 시편에 대한 위협이었을 뿐 아니라 전세계 인류에 대한 로폭적인 위협이었다.

1949년 9월에 쏘련은 핵시험을 진행하여 성공시켰다.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우리의 핵독점은 이제 햇빛을 받아 점점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자료에도 《원자탄은 미국의 독점물—이것은 트루먼의 엄청난 환상이다. 드디어 수소탄개발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등 핵군비확장경향이 시작되었다.》라고 밝혀져있다. 실지

로 그후 여러 열강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핵무기기술을 획득하고 핵보유국으로 되었다. 미국은 핵무기전과방위 조약의 정신을 위반하고 핵무기기술을 전파시킨 범죄자이다.

핵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의무를 부여한 핵무기전과방위 조약은 1968년 7월 1일에 조인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조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았다. 미국은 바로 1969년에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였다. 지난해에 미국정부가 비밀해한 문건들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 문건들에 의하면 1969년 9월 당시 미국정권자 닉슨과 이스라엘수상 메이르의 밀담을 벌이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확산조약을 계속할 필증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핵무기전과방위 동은 결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의 원자력기술협력의 간담에 1950년대에 벌써 일본의 원자력 핵개발을 완료시키고 일본본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을 작성하였다. 1972년에는 일본당국과 오키나와를 반환하는 대신 《유사시》 일본으로 미국 핵무기반입을 허용할 때 관한 비밀협의를 이룩하였다. 2010년에는 나토성원국들과 핵무장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하였다.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핵무기기술을 전파시키고 세계적인 핵경쟁을 산생시킨 장본인이며 주범이라는 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이 패권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핵국가들을 핵무기로 없애기 위해 위협공갈한 것도 핵전과와 핵경쟁을 조장시킨 원인의 하나이다.

핵무기전과방위 조약에는 핵보유국을 비핵국가들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게 되어있다. 미국은 언제나 그 조약을 준수하는 일은 다른 나라들에만 해당된다고 자기는 조약에서 행동해도 무방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놀아났다. 우리 나라는 조약준수의 의무를 부여한 핵무기전과방위 조약은 1968년 7월 1일에 조인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조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았다. 미국은 바로 1969년에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였다. 지난해에 미국정부가 비밀해한 문건들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 문건들에 의하면 1969년 9월 당시 미국정권자 닉슨과 이스라엘수상 메이르의 밀담을 벌이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확산조약을 계속할 필증을 강조하였다.

## 평화적 우주개발이 조선의 자주적 권리를

###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가 지지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지지하여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가 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과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은 우주를 개발할 때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주는 미국의 소유물이

###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지지하여 영국 선군정연구소회, 영국국제사상연구조합,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권리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단정하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핵경쟁과 관련하여 세계는 핵초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만적이고 허황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늘어놓으며 남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핵경쟁을 몰아내는데 사죄하고 세계 곳곳에 두려움은 핵무기들을 철폐해야 한다. 핵경쟁을 일으키고 조장시킨 후파의 모든 책임은 악의 흥분산인 미국에게 지워져야 한다.

### 미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지지하여 영국 선군정연구소회, 영국국제사상연구조합,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권리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단정하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핵경쟁과 관련하여 세계는 핵초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만적이고 허황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늘어놓으며 남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핵경쟁을 몰아내는데 사죄하고 세계 곳곳에 두려움은 핵무기들을 철폐해야 한다. 핵경쟁을 일으키고 조장시킨 후파의 모든 책임은 악의 흥분산인 미국에게 지워져야 한다.

### 미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지지하여 영국 선군정연구소회, 영국국제사상연구조합,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권리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단정하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핵경쟁과 관련하여 세계는 핵초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만적이고 허황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늘어놓으며 남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핵경쟁을 몰아내는데 사죄하고 세계 곳곳에 두려움은 핵무기들을 철폐해야 한다. 핵경쟁을 일으키고 조장시킨 후파의 모든 책임은 악의 흥분산인 미국에게 지워져야 한다.

### 미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지지하여 영국 선군정연구소회, 영국국제사상연구조합,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권리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단정하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핵경쟁과 관련하여 세계는 핵초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만적이고 허황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늘어놓으며 남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핵경쟁을 몰아내는데 사죄하고 세계 곳곳에 두려움은 핵무기들을 철폐해야 한다. 핵경쟁을 일으키고 조장시킨 후파의 모든 책임은 악의 흥분산인 미국에게 지워져야 한다.

### 미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지지하여 영국 선군정연구소회, 영국국제사상연구조합,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권리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단정하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핵경쟁과 관련하여 세계는 핵초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만적이고 허황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늘어놓으며 남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핵경쟁을 몰아내는데 사죄하고 세계 곳곳에 두려움은 핵무기들을 철폐해야 한다. 핵경쟁을 일으키고 조장시킨 후파의 모든 책임은 악의 흥분산인 미국에게 지워져야 한다.

### 미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지지하여 영국 선군정연구소회, 영국국제사상연구조합,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권리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단정하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핵경쟁과 관련하여 세계는 핵초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만적이고 허황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늘어놓으며 남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핵경쟁을 몰아내는데 사죄하고 세계 곳곳에 두려움은 핵무기들을 철폐해야 한다. 핵경쟁을 일으키고 조장시킨 후파의 모든 책임은 악의 흥분산인 미국에게 지워져야 한다.

### 미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지지하여 영국 선군정연구소회, 영국국제사상연구조합,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권리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단정하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핵경쟁과 관련하여 세계는 핵초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만적이고 허황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늘어놓으며 남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핵경쟁을 몰아내는데 사죄하고 세계 곳곳에 두려움은 핵무기들을 철폐해야 한다. 핵경쟁을 일으키고 조장시킨 후파의 모든 책임은 악의 흥분산인 미국에게 지워져야 한다.

### 미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지지하여 영국 선군정연구소회, 영국국제사상연구조합,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권리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단정하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핵경쟁과 관련하여 세계는 핵초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만적이고 허황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늘어놓으며 남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핵경쟁을 몰아내는데 사죄하고 세계 곳곳에 두려움은 핵무기들을 철폐해야 한다. 핵경쟁을 일으키고 조장시킨 후파의 모든 책임은 악의 흥분산인 미국에게 지워져야 한다.

### 미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지지하여 영국 선군정연구소회, 영국국제사상연구조합,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권리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단정하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핵경쟁과 관련하여 세계는 핵초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만적이고 허황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늘어놓으며 남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핵경쟁을 몰아내는데 사죄하고 세계 곳곳에 두려움은 핵무기들을 철폐해야 한다. 핵경쟁을 일으키고 조장시킨 후파의 모든 책임은 악의 흥분산인 미국에게 지워져야 한다.

### 미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지지하여 영국 선군정연구소회, 영국국제사상연구조합,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권리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단정하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핵경쟁과 관련하여 세계는 핵초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만적이고 허황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늘어놓으며 남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핵경쟁을 몰아내는데 사죄하고 세계 곳곳에 두려움은 핵무기들을 철폐해야 한다. 핵경쟁을 일으키고 조장시킨 후파의 모든 책임은 악의 흥분산인 미국에게 지워져야 한다.

### 미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지지하여 영국 선군정연구소회, 영국국제사상연구조합, 영국조선친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권리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단정하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핵경쟁과 관련하여 세계는 핵초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만적이고 허황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늘어놓으며 남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핵경쟁을 몰아내는데 사죄하고 세계 곳곳에 두려움은 핵무기들을 철폐해야 한다. 핵경쟁을 일으키고 조장시킨 후파의 모든 책임은 악의 흥분산인 미국에게 지워져야 한다.

## 조선반도에서의 미국의 세균전흥계를 규탄

### 여러 나라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우리 민족을 세균전의 대방탄속에서 몰아넣으려는 미국의 세균전흥계를 규탄하여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판지균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저장하고있는 사실이 최근에 공개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인류를 반대하는 야수적행위와 범죄악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는 대량학살의 주도자이라는 것을 날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하여 조선에서 세균전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범죄적인 야욕을 폭로하면서 온 세계가 이를 특대형범죄로 락인하고 가져야 할 징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죄의 주도자들이 미국대통령과 미국방장관, 남조선장관, 미제침략군사령관과 그 동조한 남조선당국자들을 인류공공의 재판정에 끌어내어 중엄한 처형의 심판을 내어야 한다. 세균전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써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있으며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미국의 범죄적인 계획은 이 비인간적인 무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리용하려고 획책하고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가 세균전과 화학전의 도깨비라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의 정당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국과 남조선의 공범자들을 국제형사재판정에 끌어내라! 미국은 핵무기와 세균무기들을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하라! 양기는 제 집으로 돌아가라! \* 영국군정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남조선주둔 미군의 반지군반입을 규탄하여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남조선주둔 미군이 살아있는 판지균을 비밀리에 저류한 군사기지에 끌어들이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반도에서의 생화학전행준비를 실제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 박근혜는 미제와 다를바 없는 전쟁범죄자이며 당장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 반인륜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여러 나라들 협조 아랍주권평판과 뿔스카가 8일 상업, 농업, 교육, 관광 등 분야에서 협조할 때 관한 합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최근 잠비아와 민주공공은 무역분야에서 호상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양열발전소건설 착공 오르단의 남부지역에서 8일 대양열발전소건설착공식이 진행되었다. 전력생산능력이 5만 2500KW에 달하게 되는 이 발전소는 다음해 9월에 완공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나라에서는 2018년까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능력을 180만KW로 늘

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새 회계년도 국가예산 발표 방글라데시정부가 7월부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 국가예산을 발표하였다. 새 회계년도 국가예산액은 2조 9510억TK(타카)에 달하며 이것은 새 회계년도에 비해 18%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4일 이 나라 재정상이 밝혔다.

유연생산목표 인도네시아에서 2016년에 하루평균 83만-85만bbl의 원유를 생산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올해생산목표에 비해 3.03% 더 높은 것이라 한다. 9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최신 일본당국자가 어느 한 토론회에서 《포츠담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받았다. 1945년 7월 26일 도이틀란트의 포츠담에서 발표된 《포츠담선언》은 패망후 일본의 장래문제, 법적지위문제를 밝힌 국제법적문건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국제사회앞에 준수하여야 할 법적, 국가적의무가 담겨져있다. 다시말하면 인류에게 해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준 일본이 다시는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지 않으며 《평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 국제법적문건이다. 질문자가 왜 《포츠담선언》에 대하여 질문했는가는 명백하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오늘 평화의 길로 나간다면 당국자에게 구태여 《포츠담선언》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을 받은 일본당국자의 온당치 못한 태도이다. 그는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이 세계평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을 상세히 읽지 못해 잘 알 수 없으

로 문명은 삼가하겠다고 심사가 뒤집힌 소리를 하였다. 정경이라고 자처하는 그가 자국의 패망과 관련된 역사적문건을 회피해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했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명백한 것은 군국주의일본의 정경의 길로 나가지 말고 패망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질문이 당국자의 귀에 거슬렸던 것이다. 일제의 죄악에 대하여 일본당국자는 모르쇠를 하지만 침략의 역사는 결코 지워질 수 없다. 일본의 과거역사는 아시아인민들의 피로 얼룩진 침략과 약탈의 역사, 범죄의 역사이다. 그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로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제 2차 세계대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의 엄정한 처벌을 받고 전범국, 적국으로 락인된 것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있기 때문이다. 당국자의 이런 처사는 일본사회에서 어지럽게 불고있는 군국주의바람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반동들은 이미전부터 침략역사를 외국, 미화반식하여 왔다. 오늘 그것은 더욱 로폭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태평양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오도하고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추어올리고있다. 일본당국자가 성노에피해자들에게 대하여 《인신매매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유치하고 치졸한 말장난으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있다. 또한 그는 패망 70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발표하게 되는 담화에서 침략과 사죄라는 말을 이전 정부들이 하였는데 구태여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고 하였다. 과거죄악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학술적문제가 아니다. 과거죄악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뒤돌아보겠다는 일본은 과거범죄역사를 지워버림으로써 배상을 회피하는 것과 함께 피어난 역사를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반동들은 과거 패망의 《복수》를 부르짖으며 《대동아공영권》의 깃발을 실현해 보려는 망상담을 체계적으로 해외평창을 위한 준비를 다그쳐왔다. 전범국인 일본의 군사대국화 책동은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국가안전보장정책》을 세우고 《국가안전보장정

##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

여러 나라들 협조 아랍주권평판과 뿔스카가 8일 상업, 농업, 교육, 관광 등 분야에서 협조할 때 관한 합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최근 잠비아와 민주공공은 무역분야에서 호상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양열발전소건설 착공 오르단의 남부지역에서 8일 대양열발전소건설착공식이 진행되었다. 전력생산능력이 5만 2500KW에 달하게 되는 이 발전소는 다음해 9월에 완공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나라에서는 2018년까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능력을 180만KW로 늘

## 구한배정발는 미국

전 아라비아사탄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가 6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공습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미군의 무인기공습으로 코스트주에서 약 30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관련하여 성명은 미국이 《반테로》의 구실일에 평화적주민들을 마구 죽이고 있다고 단죄하였다.

《포츠담선언》에 대해 왜 모르쇠하는가

최신 일본당국자가 어느 한 토론회에서 《포츠담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받았다. 1945년 7월 26일 도이틀란트의 포츠담에서 발표된 《포츠담선언》은 패망후 일본의 장래문제, 법적지위문제를 밝힌 국제법적문건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국제사회앞에 준수하여야 할 법적, 국가적의무가 담겨져있다. 다시말하면 인류에게 해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준 일본이 다시는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지 않으며 《평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 국제법적문건이다. 질문자가 왜 《포츠담선언》에 대하여 질문했는가는 명백하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오늘 평화의 길로 나간다면 당국자에게 구태여 《포츠담선언》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을 받은 일본당국자의 온당치 못한 태도이다. 그는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이 세계평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을 상세히 읽지 못해 잘 알 수 없으

## 미국은 도덕적가치관이 열악한 나라

미국인들을 개탄

미국인들속에서 도덕적으로 색이빠진 자기 나라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 나라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발표한 전

## 국방력강화와 안정을 위한 로씨야의 노력

전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반테로훈련 진행 로씨야의 바렌즈헤에서 5일 반테로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북함대의 해병들

## 나라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강경립장

•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이드 알리 카메네이가 4일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반미투쟁을 강화할 필증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시기 미국을 반대하여 싸운 선열들의 투쟁정신을 이란인민의 정신적유산으로 되게 하고자 말하였다. 이란은 미국의 지배주의에 맞

## 미국은 도덕적가치관이 열악한 나라

미국인들을 개탄

미국인들속에서 도덕적으로 색이빠진 자기 나라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 나라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발표한 전

## 국방력강화와 안정을 위한 로씨야의 노력

전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반테로훈련 진행 로씨야의 바렌즈헤에서 5일 반테로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북함대의 해병들

## 나라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강경립장

•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이드 알리 카메네이가 4일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반미투쟁을 강화할 필증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시기 미국을 반대하여 싸운 선열들의 투쟁정신을 이란인민의 정신적유산으로 되게 하고자 말하였다. 이란은 미국의 지배주의에 맞

## 미국은 도덕적가치관이 열악한 나라

미국인들을 개탄

미국인들속에서 도덕적으로 색이빠진 자기 나라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 나라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발표한 전

##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

여러 나라들 협조 아랍주권평판과 뿔스카가 8일 상업, 농업, 교육, 관광 등 분야에서 협조할 때 관한 합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최근 잠비아와 민주공공은 무역분야에서 호상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양열발전소건설 착공 오르단의 남부지역에서 8일 대양열발전소건설착공식이 진행되었다. 전력생산능력이 5만 2500KW에 달하게 되는 이 발전소는 다음해 9월에 완공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나라에서는 2018년까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능력을 180만KW로 늘

## 구한배정발는 미국

전 아라비아사탄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가 6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공습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미군의 무인기공습으로 코스트주에서 약 30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관련하여 성명은 미국이 《반테로》의 구실일에 평화적주민들을 마구 죽이고 있다고 단죄하였다.

《포츠담선언》에 대해 왜 모르쇠하는가

최신 일본당국자가 어느 한 토론회에서 《포츠담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받았다. 1945년 7월 26일 도이틀란트의 포츠담에서 발표된 《포츠담선언》은 패망후 일본의 장래